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365일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교회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다. 부활절 예배로 드린 I, II, III부 예배에서 이종윤 목사는 "예수께서 삼일만에 살아나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며 이로써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설교하였다. 특별히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말것을 강조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된 평화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였다. 교회학교들은 다채로운 부활절 행사를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찬양대의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1996년도 부활절은 지난 주일에 지났지만 우리의 365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소식을 전하는 책임있는 증인으로 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8-20).



제 7차 김치신학 세미나와 오세아니아권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기도의 불씨되어 오세아니아권에 성령의 불을!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이 주최하는 제 7차 김치 신학세미나가 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오세아니아주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5월 21일에 시작된다.

우리교회는 김치신학세미나가 개최되는 열흘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제 7차 김치 세미나가 효과있게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자국복음화에 기여하며, 그것으로써 세계복음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치 신학세미나의 목적 중의 하나가 타 문화권 목회자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특별히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어 온 새벽기도회의 유익을 알려 주어 새벽기도회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라는 데에 있다.

이번에 참가하는 목회자들에 의해 그들의 나라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 각자가 기도의 불씨가 되자. 특별히 오세아니

아권 복음화의 주역이 될 목회자들이 이번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되고 영적인 원리들을 빠르게 습득하며, 자국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모임(National Strategy Meeting)등이 밀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특별기도회는 5월 21일에 시작하며 김치신학세미나 폐회예배를 드리는 5월 31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동문회 제 3차 총회 및 세미나 5월 13(월), 14(화) 1박 2일간 광성교회 훈련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 동문회(회장: 정경화 목사)에서는 5월 13일(월)과 14일(화), 1박 2일간 광성수련원에서 제 3차 총회를 갖는다. 13일(월)의 특강과 14일(화) 오전에 있을 이종윤 목사의 강요, 토론을 통해 현재의 목회 방향과 동문회의 활동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동문의 자격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네 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게 주어지며, 이번 총회는 새로운 동문들을 위한 환영의 순서를 마련하였다.

총회 참석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 517-7651 ~ 5)으로 하면 된다.

창세기
강해



시험이 올 때

(창세기 39장 7절 - 12절)

이종운 목사

이세상을 사는 인간에게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세력 세가지 있는데 세상, 육신, 악마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했으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8)고 했으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사에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앎이니라”(벧전5:8, 9)고 권면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이 세상에서 나혼자 이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속삭이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요일2:22).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도 인간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당했고 이겨낸 시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이나 실패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유부녀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미혼자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7절). 그 일은 한 두번 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되었습니다(11, 12절).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로, 몸을 피함으로 이를 물리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함과 동시에 “음행을 피하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고전 6:18). 여러 종류의 어려운 시험들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당한 시험은 왜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1. 정상적이고 본능적이라는 유혹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성적인 유혹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연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나 성결한 삶에 도전한 것입니다. 성은 결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결혼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서로에게 속한 존재임을,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이름 하에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타향에서 겪는 시험

부모와 형제를 떠나 외지에서 젊은이가 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3.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의 유혹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세속적이고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매우 중요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원수가 될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자기 미래는 보장받을 수도 있었으며 거절함으로써 요셉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의 타협으로 일확천금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불의한 요구나 중요 고객의 부정확한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일에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4. 진급 직후에 온 시험

정상에 도달하려고 발버둥칠 때 온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겨우 주인의 인정을 받아 매맞는 길을 면하고 가정 총무가 된 후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자

연스러운 것이고 요셉의 성공적 처신으로 얻은 절호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을 당하기 쉽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5. 반복적인 유혹

반복적인 유혹은 마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거둬들여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거둬들여 유혹했습니다. 그를 찾아와 함께 하며 좋은 대접을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6. 좋은 기회에 마련된 시험

요셉이 시무하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죄의 길로 가기보다는 감옥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에 의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이것이 순결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음란을 피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요셉처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바울의 고백”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노라고 말하였다. 그의 고백은 그가 교만해서 그처럼 말한 것도 아니요, 자기 선전이나 과장으로 말하려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아 시인하고 있었으며 주를 위하여 수고할 마음이 생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수고를 참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나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도 자기의 탁월한 역량이나 인내심과 도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나의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자

계절의 여왕 5월이 오면 서울 교회의 온 성도들은 손님맞을 감격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한 국연구원(KIMCHI)이 주최하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오세아니아주의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데 이번 세미나는 로잔위원회가 공인하는 국제행사로서 이루어지기때문에 더욱 뜻깊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개교회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로잔위원회같은 권위있는 세계적 기구로부터 신학세미나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은 서울교회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욱 큰 기도와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협력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대로 가감없이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하는 것뿐입니다.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종운 목사님을 선두로 당회원 모두와 제직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땀을 바쳐보자는 것입니다.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앞두고

오세아니아를 향한 우리의 소원

김대호 (장로, 김치준비위원장)

개교회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로잔위원회같은 권위있는 세계적 기구로부터 신학세미나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은 서울교회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금년에도 모범적이고 경건한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시선을 오세아니아주에 모읍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혹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욱 자연스러울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성경원리를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김치신학세미나를 시작하였고 교회설립부터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계속했더니 뜻하지 않게 로잔위원회의 강력한 후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도들의 더 많은 참여와 헌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 오시는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천사와도 같다고 봅니다.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계획된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독교의 현장을 비게 되었으니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땅끝에 전해질 때까지 전세계를 교구로 삼고 김치신학세미나를 계속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다짐하며 금년에도 모범적이고 경건한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시선을 오세아니아주에 모읍시다.

따뜻한 주목을 받게 되실 오세아니아권 손님들에게 우리도 계속 큰 기대와 흥분을 안고 기다리고 있다고 중간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④ - 참가국 ②

뉴질랜드 (New Zealand)



■ 면적 - 268,000Km²

■ 인구 - 3,507,000명(1995년도 현재)

■ 공용어 - 영어

■ 수도 - 웰링턴

■ 대도시 - 오클랜드

■ 경제 - 고소득의 수출지향적 농업이지만 과잉생산으로 약간의 경제가 후퇴하였다. 극적인 규제완화와 부분적인 복지정책 철회로 힘겨운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력의 10% 이상이 80년대에 호주로 이주했다.

■ 정치 - 1907년 영국에서 독립. 국가 수반으로 영국의 군주가 있는 안정된 의회 민주주의.

■ 종교 -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회가 없다.

기독교가 69.9%(그 중 개신교는 50.3%이며 성장율은 0.2%),

■ 선교사 -

뉴질랜드 사역 선교사 - 37개 단체의 221명 (1:6,100 개신교인)

뉴질랜드 파송 선교사 - 77개 단체의 1,701 (1:1,000명)

■ 뉴질랜드는 지금

① 새로운 예배, 교단간의 자유로운 교류, 70년간의 감소추세에서 반전되어 현실했던 기독교인의 증가 등 모든 교단이 계속 부흥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는 감소하고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교회에 일어난 활발한 성령의 역사를 인해 주를 찬양하자

② 그러나 부흥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 강해설교와 강한 기독교 교육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없이 감동과 감격만으로 지탱되는 교회와 교회학회가 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자. 회심한 영혼들을 보살피고 교회의 지도력이 정착되며 전도가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도하자.

③ 뉴질랜드인들은 점차 세속화 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럽고 믿음없는 세대에 진리를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④ 뉴질랜드 선교에 대한 비전은 다른 많은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고 있으며 많은 선교후보생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도 후원하자.

⑤ 기독교 사역단체가 많고 영향력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사역단체들의 활동과 방송선교 등이 교회를 강건케 하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⑥ 마오리족의 문화부흥과 배상요구는 백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마오리족은 문화적 혼란에 따른 높은 실업율, 상대적 빈곤, 청소년 범죄, 복지시설 부족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토착적이지 못하며 종종 비마오리족 중심이다. 물론교, 링가투, 리티니 등 혼합 종파가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다. 마오리족이 복음을 완전히 수용하여 그들의 문화를 다시 꽃피우도록 기도하자.

새 예배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

5월 1일(수), 2일(목) 양일간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새 예배당 건축 기금을 마련기 위해 『모임과 나눔의 장』을 연다. 이 바자는 오는 5월 1일(수)와 2일(목), 양일간 우리교회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모으는 것은 학용품, 책, 옷, 화장품, 가구, 악기, 그릇, 생활필수품, 컴퓨터, 자동차 등 활용가능한 모든 물건인데 여전도회 협의회에서는 중고품은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리·수선하고 헌옷의 경우도 세탁하고 손질해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특정업체와 협력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번 바자에 업체들과의 협의 및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모임과 나눔의 장』을 통해 모은 물품의 판매 금액 전액은 건축금으로 바치게 된다. 이 바자의 목적은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려는 데 있다.

▶ 모임 · 모으는 때 / 4월 15일(월) - 5월 1일(수)

· 모으는 곳 / 사무국

· 모으는 것 / 상품이 필요한 것은 모두

※ 중고품은 반드시 수리, 수리, 세탁하여 기증해야 함

▶ 나눔 · 나누는 때 / 4월 15일(월) - 5월 1일(수)

· 나누는 곳 / 서울교회당(앞마당, 3층, 옥상 등)

· 나누는 것 / 모은 물건들, 기타 상품, 먹거리...

오늘 찬양예배 시 헌신예배 드리는 대학부

오늘 찬양예배는 대학부 헌신예배로 드린다. 교회 설립 당시 대청부로 시작하다가 1993년 5월에 대학부와 청년부로 분리된 후 부흥을 거듭해온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 지도: 원호 목사)는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집회를 시작하며 메시지와 찬양의시간, 조별공부 등을 통해 말씀공부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

대학부 헌신예배로 드리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국제 기도은행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순서를 갖기도 한다.

■ 교우 동정 ■

* 김영훈 · 김은규 성도 (5교구, 평촌다락방) 가정은 4월 3일 득남하였다.

새벽의 기도

박용현 (집사, 1교구)



이른 새벽

드문 인적 찬 바람의 큰 길을 건너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 예수님 닮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애원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십자가의 고난 되새겨보며
지난 날의 잘못된 내 삶을 돌아본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인류의 모든 죄 대속하신 성스러운 죽음의 고통이
우리들 삶의 고통에 비할까!

모 - 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만 이어지는 우리들의 오늘은

참으로 참으로 고맙게만 느껴지나니

우주만물의 생사화복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에

벌레같은 우리들의 과분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새벽 기도에 발을 옮긴다.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죄 지었어도

죽은 뒤의 영혼이 주 하나님을 뵈을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내일도 속죄의 진실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발을 옮긴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서.

■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⑤ 4월 22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현대교회와 의료윤리 (맹용길 박사)

⑥ 4월 29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복대책(김영한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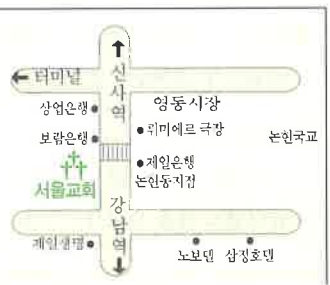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생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을 믿으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 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3.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